



Weekly Keyword

"오랜만에 반등하는 로봇株"

오랜만에 로봇주 반등 기록 중. 완전한 업황 개선 기대감에 더해 삼성 봇핏 출시가 이슈화되며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 확산 중. 하반기 금리 인하 등 더해지며 상반기보다 주가 흐름 개선 기대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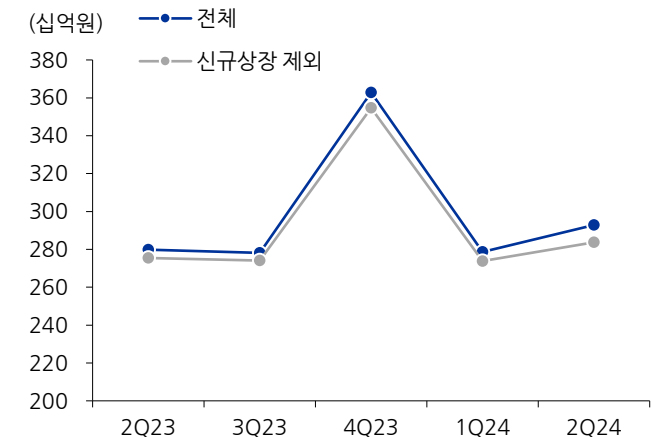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2)

[오랜만에 반등하는 로봇株 업황 반등 + 삼성 봇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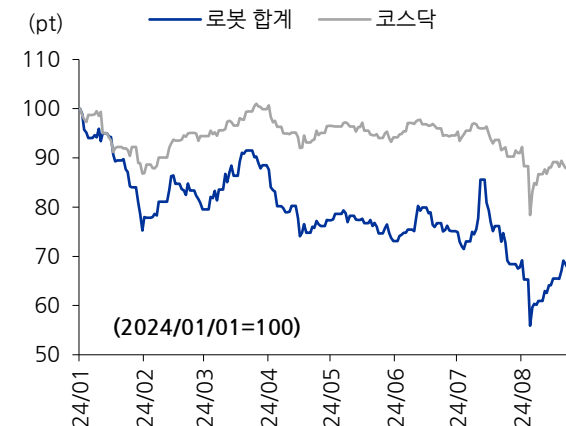
■ 연초 30% 이상 조정받던 로봇 주들이 소폭 반등. (1) 국내 로봇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당사가 팔로우업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비 5% 증가. 일부 로보티즈 등 영업손익 기준 흑자 달성하는 기업들도 나오는 중. 해외(일본, 미국) 로봇 기업들도 실적 및 수주 반등 추세. 완전한 업황 개선세 확인된 점 긍정적. (2) 또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9월 봇핏 출시 이슈로 관련 기업 중심 주가 강세 기록 중(OEM: 인탑스, 액츄에이터: 에스피지). 이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아직 큰 모멘텀은 보이지 않으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과 더불어 주가 흐름은 상반기 대비 개선 기대

Key Chart: 국내 로봇 기업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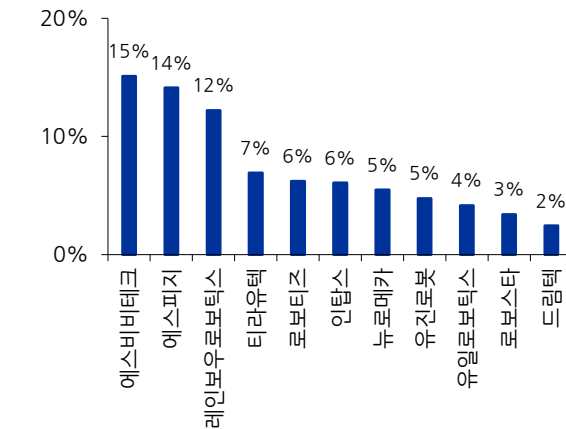


자료: Quantivise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W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vise

로봇 주요 뉴스(08/19~08/25)

[산업용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다음주 新 협동로봇, AMR 제품 공개
- 뉴로메카, 상반기 조선행 협동로봇 직접 매출 첫 발생

[서비스 로봇]

- 카카오모빌리티, 리솜리조트에서 로봇 배송 '브링' 운영
- 조리용 로봇 등을 도입한 GS25 체험형 매장 오픈
- 롯데그룹, 주차로봇 사업 관련 검토 중인 것으로 추정

[기타(정책/부품/SW)]

- 에스피지, 삼성전자 봇핏에 액츄에이터 단독 공급 개시
- 상반기 로봇 기업 매출액 실적 전년비 -1.5% 기록
- 비전 AI 솔루션 기업 씨메스 증권신고서 제출, 10월 상장
- 알에스오토메이션-뉴로메카 MOU 체결. 부품 공동 개발
- 뉴로메카, 독일 Enrich와 유럽 첫 파트너사 체결
- 뉴로메카 상반기 매출 110억 달성. 전년비 275% 증가
- 두산, 국내외 5곳에 두산로보틱스 교육센터 운영

[Global]

- 테슬라, 옵티머스 데이터 수집 전문 인력 채용 중
- 보스턴다이나믹스 전기형 아틀라스 팔굽혀펴기 영상 공개
- 애플 로봇은 폭스콘 자회사 홍준정밀공업에서 제작 추정
- 유니트리로보틱스, 2천만원대 양산형 휴머노이드 G1 공개
- 중국 전문가, 휴머노이드 5~10년 뒤 가정 진입 예상
- 중국 애지봇, 휴머노이드 공개. 10월 출하, 연내 300대 생산
- 세계 로봇 관련 유효 특허 수 2/3 중국 보유 추정
- 우크라이나 군, 전투 지역에 로봇 개 투입 추정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방산 9월 투자 전략"

이벤트가 다수 산재한 9월 방산주 주목 필요. 9월 초 폴란드 MSPO와 9월 말 한국 방산 전시회에서 다수 계약 체결 기대감. 또 한 8월말부터 한화에어로 거래정지 들어가며 수급 이슈도 주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a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

[방산 9월 투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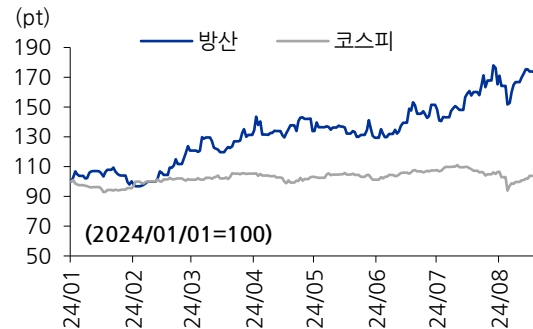
- 방산 주가 모멘텀이 다수 산재한 9월이 다가오는 중. 첫번째로 9월 3일~9월 6일 예정된 폴란드 MSPO. 현재 현대로템 K-2 2-1차 계약 등 체결이 유력시되는 중. 또한 9월 말에는 DX Korea(방위사업전)이 예정되어있어, 국외 고위 군사 관계자들 방한 및 MOU/계약 체결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예상. 마지막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분할 이슈. 인적분할 주주 승인으로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거래 정지 예정.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도 주목 필요

Key Chart: 하반기 주요 방산 전시회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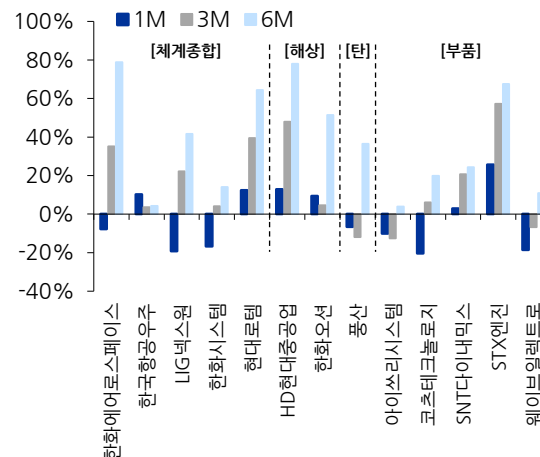
국가	전시회명	시기
폴란드	★MSPO	2024. 09
호주	Land Forces	2024. 09
남아공	Africa Aerospace & Defense	2024. 09
아제르바이잔	ADEX	2024. 09
한국	*DX Korea(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4. 09
필리핀	ADAS	2024. 09
일본	Japan AEROSPACE	2024. 09
한국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	2024. 10
미국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2024. 10
체코	Forum & Exhibition Future Forces	2024. 10
UAE	Dubai Helishow	2024. 10
튀르키예	SAHA EXPO	2024. 10
프랑스	EURONAVAL	2024. 11
인도네시아	Indo Defense Expo	2024. 11
베트남	Vietnam International Defense Expo	2024. 12

자료: KITA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방산 주요 뉴스(08/19~08/25)

[수주/계약]

-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도입 협의
- 9월 말레이 국방장관 KAI와 FA-50 18대 추가 협의 기대
- 방사청장, 호주에서 방산협력 논의. 한국 호위함 홍보
- LIG넥스원, 해군 무인 수상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유력
- 한화시스템,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 KADEX 2024, 15개국 38개 방산기업 참가 예정
- 원거리 타격용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양산 결의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호주 방산 생산기지 H-ACE 완공
- 한화에어로, 인적분할승인,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신설
- 한화에어로, 미국 법원장에 록히드마틴 부사장 영입
- 현대로템 미국 보스턴 2층 객차 추가 수주, 2,400억 규모
- KAI, 말레이 수출 FA-50 사업 진척률 37% 돌파
- KAI, 태국 국영 방산기업과 T-50TH 후속지원 협력
- 현대중공업, 필리핀 및 페루에 현지 법인 설립

[기타]

- 2024년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기대
- KF-21 관련 인도네시아 분담금 6천억으로 축소
- 수출용 미사일 사거리 300km에서 500km로 연장
- 한국 아파치 헬기 36대 및 헬파이어 미사일 도입
- 호주군 K-9 자주포 통합 앞두고 한국에서 운용 노하우 전수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2024.08.26

Weekly Keyword

“일본 난카이 트로프 지진 영향

8월 초 일본 지진 발생 이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우려 확산. 실제 일본 노선 수요에도 부정적 기류 감지. 구조적 여행 수요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중국/동남아로 여객 수요 분산 가능성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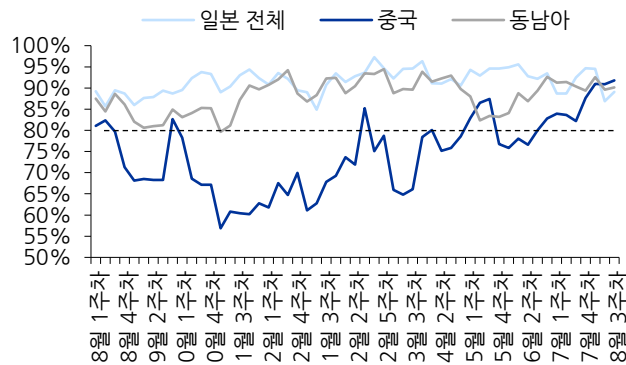
SELL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

[일본 난카이 트로프 지진 영향 Follow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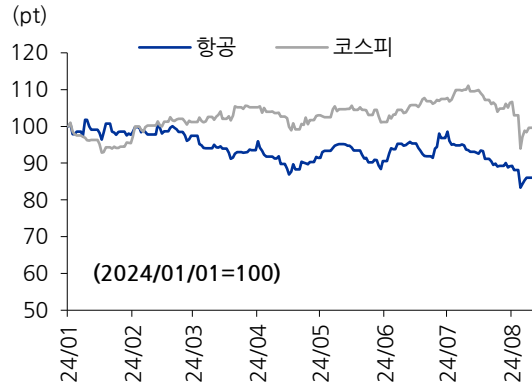
- 8월 8일, 일본 지진 발생 이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발생 우려 확산. 실제 일본 항공 노선 수요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는 중. 단일 기종 운영 중인 제주항공 기준 8월 1~3주차 일본 노선 탑승률은 95% → 87% → 89%로 다소 부진한 모습. LCC들의 일본 노선 편당 여객 수도 197명 → 187명 → 183명으로 감소 추세. 단기적으로 국외 출국자수에 부정적 영향 나타날 가능성 높으나, 코로나와 같이 여행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침체될 가능성은 제한적. 일본 → 중국/동남아로의 여객 수요 분산 가능성 주시. 항공사들의 유연한 대응 능력 필요한 시점

Key Chart: 제주항공 주요 노선 탑승률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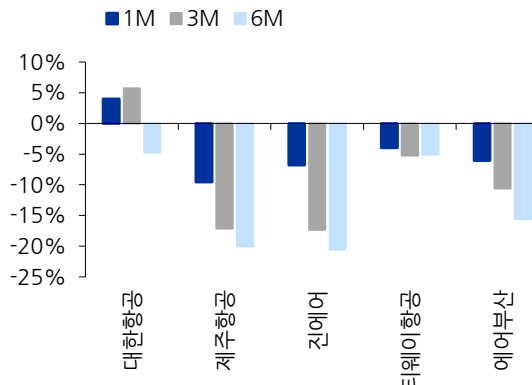


자료: 에어포탈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8/19~08/25)

[여객]

- 서구 항공사, 러시아 영공 우회로 중국 노선 중단
- 한국 항공사, 중국 공급 확대 속 저조한 탑승률 고민
- 최장 9일 추선 연휴. 일본/동남아 등 공급력 확대 추진
- 대한항공-에어프레미아, 미-중 연계운항 노선 12개 추가
- 8월 한국-일본 이용객 138만명. 지진 우려에도 증가세
- 에어부산, 동계 기간 부산-마쓰야마 증편 운항
- 이스타항공, LCC 단독 정저우 노선 재취항

[화물]

- 인천공항 C커머스 급증으로 물류허브 도약
- 중국 상반기 항공화물우편운송량 전년비 27% 증가

[기타]

- 8월 30일 산자부/국토부 합동으로 SAF 관련 정책 발표
- 티메프 사태 등으로 여행심리 위축 우려 제기
-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장시간 출발 지연되는 사례 증가
- 로봇산업진흥원, 첨단로봇 실증 지원 플랫폼 오픈
- KAEMS, 필리핀 세부퍼시픽 항공 초대기 정비 출고
- 항공사들 9월 유류할증료 인하. 최대 2만원 절감

[Global]

- 미국 법무부, 알래스카 하와이안항공 합병 승인
- 보잉 777X 부품 결함 발견. 상용화 지연 우려 제기
- 사우스웨스트 항공 투자자 요구로 성공모델 좌초위기
- 미국 LCC 넓은 좌석에 와이파이 도입 등 고급화 전략
- 카타르항공, 남아프리카 에어링크 지분 25% 인수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